

# 신앙과 학문으로 미래의 세계를 열어가는 성결대학교

성 기 호  
성결대 총장



## 1. 연 혁

### 1) 건학이념

**학** 교법인 성결교신학원의 성결대학교는 성경적 복음주의 신앙노선의 전통을 근간으로 하여 보수신학에 철저한 교회의 교역자 및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2) 발전과정

본교는 1962년 9월 성서주의 복음신앙을 고수하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신학교로 설립되었다. 그 후 1965년 1월 신학과 30명 정원의 '성결교신학교'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66년 12월 문교부로부터 4년제 정규대학과 동등

한 학력인가를 받아 대내·외적으로 대학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었다. 교세가 날로 확장되면서 증과 증원되고 규모면에서 각종 학교의 수준을 벗어나게 되어 1991년 11월 정규 신학대학으로 개편·인가되었고 1992년 4월 성결교신학대학교로 교명이 변경·인가되었다. 그간 성장과정에서 신학 외에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지도자 양성이 국가의 교육정책과 일맥상통하여 인문사회계열의 학과가 증설되면서 신학대학의 교명 아래 종합대학의 다양한 학과로 구성되어 있음이 현실로 나타나, 학교를 위시한 대내·외의 의견이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으로서 교명을 바꾸어야 한다는 요구가 집약되어 1995년 3월 성결대학교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1961년 12월 영암 김응조 박사를 중심으로



▲ 철저한 기독교적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헌신적인 비탕과 성실한 성품을 갖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성결대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영어와 전산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 재단 이사회를 구성하고 당시 균명(현재 환일) 중·고등학교 설립자 겸 이사장인 김영순 장로가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1962년 9월 서울 서대문구 총정로 김응조 박사의 사택을 임시 교사(校舍)로 개교하고 김응조 박사가 초대 교장에 취임하게 되었다. 1963년 11월 홍대실 권사가 서울 서대문구 행촌동에 자신의 사재로 연건평 786m<sup>2</sup>의 3층조 벽돌건물을 건축하여 헌납하였고, 1973년 11월에는 안양에 있는 땅을 기증하여 1975년 5월 5층으로 된 교사를 준공하였다. 1978년 10월에는 영암 김응조 박사의 성금으로 생활관을 건립하여 학생들의 복지에도 기여를 하

였다.

1980년부터는 산업사회의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시대에 부응하여 인문사회계열 학과를 증설하여 주·야간 11개 학과에 입학정원 450명 규모로 성장하였다. 학교가 규모면에서 매년 성장함에 따라 1984년 안양교사로 야간학과를 옮겼으며, 1986년 5월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9,090m<sup>2</sup>의 교사와 10,000m<sup>2</sup>의 대운동장을 완공하였다. 매년 학과의 증과 증원을 계기로 1989년 7월 대학의 도서관과 교수연구실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초현대식 건물을 신축기공하여 2년여 만에 준공을 하였다.

1989년 12월 이성주 박사에 이어 성기호 박

사가 제4대 교장에 취임하여 대학개편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1990년 9월 교육부로부터 4년제 정규대학으로 개편승인되고, 1991년 11월 15일 대학으로 개편인가되어 성결인들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성결대학교는 신학 및 인문사회계열을 중심으로 성장을 계속하여 오다가 자연계열 학과들을 증설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종합대학교로 발전하고 있다.

## 2. 학교 현황

본교는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으로서 삼면이 수리산 숲에 둘러싸여 있고 안양, 평촌, 산본 신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아늑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 세계화와 무한 경쟁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지방 자치시대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학은 백년대계의 교육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규모로는 개교 100년을 자랑하는 일부 대학에는 못 미치지만, 작으면서도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하였기에 1995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 무엇보다 교수 채용에서 13:1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유능한 교수를 영입하였고, 학교의 면학 분위기 향상과 함께 95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평균경쟁률 37.4:1, 전자계산학과는 87:1로 전체는 물론 학과 경쟁률에서도 전국 최고의 기록을 세우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인적 자원에 관한 한 우리 대학의 장래는 밝다. 본교는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상기 하면서 교육시장이 개방되고 경쟁시대가 온다 해도 그동안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다.

본교는 현재 17개 학과에 2,840명의 정원을 갖고 있으며 교지 155,032m<sup>2</sup>와 교사 25,734m<sup>2</sup>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환경을 개선하

여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본교에 인접해 있는 현대식 건물 3,961m<sup>2</sup>와 대지 12,298m<sup>2</sup>를 매입하여 교육여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996학년도부터는 더욱 활기찬 대학으로 발전하리라 기대한다.

## 3. 교육목표 및 방향

본교 교육의 기본목표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데 있다. 올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을 사회가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학문탐구를 하기에 앞서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철저한 기독교적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헌신적인 바탕과 성실한 성품을 갖도록 교육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극히 제한된 장소에서 학문을 익히는 것을 지양하고 세계를 알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의국대학과의 학생 및 학술교류를 확대하고 유능한 학생에게는 학문의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모든 학생에게 성경을 우선으로 한 학문을 익히고 그리스도의 신앙과 인격을 겸비한 전인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한다.

둘째, 신학계열 학생에게는 철저하고도 수준 높은 신학교육을 실시하여 복음주의 보수신앙에 투철한 기독교 사명자가 되도록 한다.

셋째,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의 자매학교에 교환학생 교류나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며 전공분야는 물론 영어 및 전산교육에 역점을 둔다.

## 4. 발전방향

본교는 무한경쟁시대를 선도해 나아갈 인물을 배출하여 지역사회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대학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의 규모를 일

정수준까지 끌어 올리고 학내의 기구개편을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체계있는 교육의 요람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학원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다음과 같이 모든 여건을 연차적으로 과감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첫째, 대학 규모면에서는 증과 증원을 사회의 요구와 지역발전을 전제로 하여 확대하는데 세계화·개방화 시대를 대비한 어문계열 확대와 지방자치화 및 과학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사회계열과 이공계열을 중심으로 매년 증과 증원을 하여 2004년에는 4,500명 규모로 성장토록 할 것이다. 시설면에서는 대강당 겸 대학교회 건물을 신축하여 학생들의 경건한 신앙을 기르고 교회음악과를 위한 발표회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음향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둘째, 대학기구의 능률적인 개편 및 학생 중심의 학제와 교육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기구의 보직이 업무나 기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조직되고 임명되어야 하는데 모양 갖추기식의 위인 보직화 경향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모순성을 과감히 정리하여 교육, 연구 및 행정지원 체제가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부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여 학생들

이 다양한 학문을 접하고 복수전공을 할 수 있도록 학부간, 학과간, 전공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연구와 교육중심의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신학대학원을 설치하여 전학이념에 따라 M.Div. 과정은 물론 Th.M.과 Th.D. 과정까지 설치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목회자 양성은 물론 교수양성을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다. 중기적으로는 사회계열 특수대학원을 설치하여 지방화 시대를 선도할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공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부설연구소의 활성화로 연구소 중심의 연구하는 대학이 되도록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설치된 연구소가 9개에 달하여 연구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부 또는 학과나 전공군별로 특색있는 연구가 되도록 연구소를 축소정비하고 자연계열의 연구소를 증설하여 실제적으로 연구활동과 교육간 연계가 이루어지는 연구소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과 같은 계획을 정책으로 반영하여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시대에 명실공히 미래의 국가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양성의 사명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